

『今昔物語集』의 耶輸陀羅

—한국의 불전자료 『釋迦如來十地修行記』와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金泰光*

目次

1. 들어가는 말
2. 耶輸陀羅
3. 『今昔』의 耶輸陀羅
4. 『十地修行記』와의 비교고찰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일본설화문학의 대표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今昔物語集』(1130년~1140년 성립추정)는, 天竺(인도)·震旦(중국)·本朝(일본)의 불교설화와 세속설화를 全31권(그 중 제8권·제18권·제21권 缺卷)에 千餘話 수록한 방대한 작품이다. 제1권에서 제5권은 天竺, 제6권에서 제10권은 震旦, 제11권에서 제20권은 本朝의 仏法部, 제21권에서 제31권은 本朝의 世俗部로 나누어진다.

壯大한 三國仏敎史를 構想하는 등, 『今昔物語集』의 인식체계의 基底를 이루는 것은 불교이다. 특히 『今昔物語集』 天竺部는, 제1권에서 제3권에 下天托胎에서 入涅槃까지의 이른바 八相成道에 의한 석가모니在世時의 이야

* 경동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 중고중세설화문학.

기, 제4권에 「仏後」의 이야기, 그리고 제5권에 「仏前」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天竺部 전체가 仏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¹⁾. 이 仏伝은 일본문학 사상 최초의 체계적·조직적 불전문학이라는 가치를 가지며, 또한 『今昔物語集』의 출발이 仏伝인 만큼,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今昔物語集』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今昔物語集』 불전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실달태자 부인이면서 태자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羅睺羅의 어머니니로 알려진 耶輸陀羅(野輸多羅)에 관해 『今昔物語集』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이 『今昔物語集』 불전구성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今昔物語集』 冒頭에는 불전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석가의 前生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다. 예를 들면, 『過去現在因果經』²⁾처럼 석가의 前生인 善慧仙人이 蓮花꽃을 파는 여인(耶輸陀羅의 前生)과의 發願受記하는 그런 이야기가 『今昔物語集』 불전 冒頭에는 없다. 『過去現在因果經』은 『今昔物語集』 불전 초반 구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 底經이었던만큼 『今昔物語集』와 대비하여 큰 차이로 아니할 수 없다.

이런 『今昔物語集』(이하 『今昔』(곤자쿠)이라 함) 불전의 구조적 특징과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불전자료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이하 『十地修行記』라 함)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今昔』 耶輸陀羅像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덧붙여, 『今昔』 仏伝 연구의 일환인 본고의 주된 목적은 『今昔』에 그려져 있는 耶輸陀羅像의 규명에 있음을 밝혀둔다.

2. 耶輸陀羅

耶輸陀羅(야쇼다라)는 悉達太子(싯다르타태자)의 妃로, 석가의 십대제자 중 한명인 아난다의 누이이자 석가의 외사촌으로 알려져 있다. 콜리(Koli)

1) 제5권은 학자에 따라서 世俗部나 王統部로 파악하기도 한다. 넓게 보면 天竺部 전체를 仏伝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八相成道에 따른 제1권에서 제3권을 불전으로 파악하여 논을 전개한다.

2) 全 4권, 444~453년경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가 번역한 경전으로, 서명의 의미는 과거세의 원인과 현재세에 있어서의 그 결과를 설하는 경.

성의 미모의 공주로 석가족 출신이었으며 석가와 사이에서 아들 羅睺羅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된 경전에는 석가 妃에 관한 것은 거의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妃에 관한 이름을 기재하고 그녀에 관한 설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후대에 성립된 경전들이다. 太子妃에 관해서는 이 이외에도 瞿夷, 鹿野 등이 있지만 耶輸陀羅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³⁾.

그녀에 얽힌 설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그녀의 前生에 관한 이야기, 석가의 前生과 얽힌 이야기
- 2) 결혼(納妃) 등 夫婦에 관한 이야기
- 3) 아들 羅睺羅의 출생과 出家 등 羅睺羅와 관련된 이야기
- 4) 그녀의 出家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에 있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過去現在因果經』 冒頭를 장식하는 蓮花 공양이야기이다. 『過去現在因果經』은 석가의 前生, 善慧仙人이 普光如來(然灯仏)로부터 無量阿僧祇劫이 지난 뒤 석가여래가 된다는 授記를 받는다. 『佛本行集經』에도 같은 연등불의 授記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비롯해 불전의 冒頭에 본생담이 올 경우, 전통적으로 그것은 대부분 위의 연등불의 授記설화가 지배적인 듯하다. 이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즉 석가가 前生에 善慧仙人이었을 때, 꽃 파는 여인, 耶輸陀羅로부터 蓮花 꽃을 구해서 然灯仏에 공양하는 등의 공덕에 의해 그 부처로부터 미래에 부처가 된다는 授記(予言)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今昔』 불전의 석가출세성도담(제1화~제8화)의 근간은 『過去現在因果經』 및 『佛本行集經』인데⁴⁾, 이 蓮花 공양이야기는 『今昔』 冒頭に 보이지 않으며, 아들 羅睺羅의 出家와 관련된 설화(제1권 제17화)에서 耶輸陀羅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음에 불과하다. 또한 석가와 얽힌 耶輸陀羅의 전생설화도 耶輸陀羅宿業譚을 이야기하는 제3권 제13화 1화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悉達太子가 妃를 맞이한 것은 南伝 『자타카』(序文)에 의하면

- 3) 『岩波佛敎辭典』(岩波書店, 1989)의 「耶輸陀羅」條 참조. 참고적으로 羅睺羅의 어머니로서는 耶輸陀羅가 거의 고정적이며, 석가 妃에 관해서는 3名, 2名, 1名說 등 일정치 않지만, 「昔時 瞿夷是今日耶輸」(『法華文句記』 제2권 상)처럼 耶輸陀羅로 집약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 4) 『過去現在因果經』은 十卷本 『釈迦譜』을 통해서 受容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本田義憲氏, 『今昔物語集傳の研究』, 『叙説』 제10호, 1986년.

태자나 16세 때의 일이다. 그러나 北方에 전해진 설에 의하면 17세 때의 일로 기록되고 있다⁵⁾. 『今昔』와 『十地修行記』도 17세설을 취하고 있다. 耶輸陀羅는 이웃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공주로 묘사되어 있고, 여러 경전에는 사촌동생인 提婆達多(데바닷타) 등과 무예를 겨루어 승자가 된 태자가 耶輸陀羅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한다. 『今昔』에는 耶輸陀羅의 納妃이야기는 있으나, 간략하며 이 무예경시 등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아들 羅睺羅의 탄생과 출가에 얽힌 이야기도 경전에는 풍부하다. 『佛本行集經』, 『大智度論』, 『雜寶藏經』, 『釋迦譜』 등에 의하면, 석가의 아들 羅睺羅는 석가출가 후 6년 만에 낳았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주위로부터 멸시와 의심을 사게 되고 급기야는 불구덩이(또는 물구덩이)에 빠뜨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연꽃이 피어나 의심이 풀리는 등의 이야기를 전개한다거나⁶⁾, 혹은 석가가 성도 후 환국하자 耶輸陀羅는 자기에 대한 악평을 없애기 위해 나후라로 하여금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석가를 찾으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석가는 羅睺羅를 출가시키기 위해 사자를 궁궐에 보내는데, 어미로서 아들의 출가를 꺼려하는 耶輸陀羅 이야기 또한 유명하다.

『今昔』에는 羅睺羅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羅睺羅 출가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法華經』에 의하면, 耶輸陀羅는 석가가 도를 깨달은 후에 정반왕(淨飯王)이 죽자, 석가의 이모 마하프라자파티와 함께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으며 석가로부터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授記를 받는 이야기가 보이기도 한다.

『今昔』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耶輸陀羅의 出家이야기는 제목만 있고 본문은 缺話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耶輸陀羅 등장 설화는 위에서 든 ‘前生’, ‘夫婦’, ‘아들 羅睺羅’, ‘出家’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5) 中村元씨(1992), 『コータマ・ブツダ I』(春秋社) 참조. 참고로 北伝의 예로는, 『太子瑞應本起經』 상권(『大正藏』 제3권, 457)과, 『過去現在因果經』 제2권(『大正藏』 제3권, 629) 등이 있다.

6) 일례로, 조선 세종 때 성립된 한국의 불전 서사시 『月印千江之曲』의 一例를 들어둔다. (실달 태자의 아들) 나운이 나시거늘 구덩이를 파고 불을 피우니 임금과 신하의 의심이 시더니, 야수가 (의심을 받으므로 나운을 안고 물 속으로) 들어가시니 물이 괴고 연꽃이 피니 임금과 신하가 의심을 아니하시니(월인천강지곡 60, 通釋)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今昔』에 등장하는 耶輸陀羅 설화를 살펴보자.

3. 『今昔』의 耶輸陀羅

먼저 『今昔』의 耶輸陀羅 관련 설화를 위에서 든 분류에 따라 정리해서 요약 개관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今昔』의 耶輸陀羅 관련 설화

분류	번호	卷·話	본문제목	본문내용
‘前生’	6	제3권 제13화	仏, 說耶輸多羅宿業給語	석가, 前生에 耶輸多羅를 화나게 만든 이야기
‘夫婦’	1	제1권 제3화	悉達太子, 在城受樂	석가, 結婚과 四門出遊 이야기
	2	제1권 제4화	悉達太子, 出城入山語	석가, 出家 이야기
	3	제1권 제5화	悉達太子, 於山苦行語	석가, 苦行 이야기
‘아들 羅睺羅’	4	제1권 제17화	仏, 迎羅睺羅令出家給語	羅睺羅의 出家 이야기
‘出家’	5	제1권 제20화	仏, 耶輸多羅令出家語	耶輸陀羅의 出家 이야기(본문 缺)

『今昔』天竺部에는 180화 이상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듯, 耶輸陀羅가 등장하는 설화는 6화에 불과하다. 양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⁷⁾.

위에서 보듯, 耶輸陀羅는 『今昔』의 제1권과 제3권에만 등장하며 제2권, 제4권, 제5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불전의 구성에서 보면 釋迦出世成道譚에 3화, 轉法輪譚에 3화가 보인다. 다만, 3번의 제1권 제5화에서는 말을 끌고 태자를 따라 갔던 車匿이 궁궐로 되돌아 왔을 때 宮人들이 석가의 이

모, 마하프라자파티와 耶輸陀羅에게 고하는 장면에서 이름만 보이며, 5번의 제1권 제20화, 耶輸陀羅의 出家 이야기는 本文缺話로 제목만 남아 있다.

왜 缺話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생각되지만, 우선 하나로는 이미 제1권 제3화 결혼이나 제1권 제17화 아들 羅睺羅의 出家 이야기에서 耶輸陀羅 인생에 관한 것이 서술되어 있기에, 그것들을 생략하고는 1화가 성립되지 않아 缺話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耶輸陀羅는 나중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는데, 『法華經』 제5권 勸持品에는 내세에 成道하여 具足千萬光相如來가 될 것이라는 授記를 받는 장면이 보인다⁸⁾.

우선 ‘前生’ 설화에서 과거 연등불 때의 善慧仙人과 蓮花인연 이야기 같은 것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신 耶輸陀羅 宿業譚(제3권 제13화)이 보인다. 이 宿業譚은 다른 중세 불교설화집에는 나타나지 않고 『今昔』에만 보이는 설화여서 주목된다. 석가의 前生과 얽혀 있어 본생담으로 분류되는 이 宿業譚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석가가 아직 悉達太子였을 때 妃의 한 사람인 耶輸陀羅에게 아주 잘 해주고 많은 진귀한 보물을 주었지만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석가는 과거세에 耶輸陀羅와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인도의 가라국에 한 태자가 있었는데, 사소한 잘못에 의해 태자비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었다. 태자는 妃와 함께 국경을 넘어 어떤 허름한 사당에 머물러 살았는데 기근을 만나 먹을 것이 부족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잡았다. 태자와 태자비는 그것을 냄비에 넣고 끓여 함께 나눠 먹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태자는 妃가 물을 길러 간 사이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혼자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 이런 사실이 妃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 後世에 부부인연을 같이 하여 어떤 진귀한 선물을 주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항상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⁹⁾.

석가의 前生 모습은 聖者の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이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耶輸陀羅는 항상 토라져 있고 쌀쌀한 느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석가와 耶輸陀羅의 관계는 과거세부터 現生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7) 『今昔』天竺部에는 제5권 「佛前」을 중심으로 본생담이 명확한 것(설화서술하고 連結 부분을 가짐)이 17화 정도 있다. 하지만 耶輸陀羅의 등장은 여기의 제3권 제13화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8) 國東文磨譯註, 『今昔物語集(一)』, 1979, 講談社, 213P.

9) 『今昔』의 본 이야기는 『佛本行集經』 제12권(大正藏三, 708)과 이를 재인용한 『法苑珠林』 제10권(大正藏五三, 355c~356a)에 보인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은 제1권 제17화에 수록되어 있는 아들 羅睺羅의出家譚이다. 석가가 羅睺羅를 出家시키려고 사자로 보낸 佛弟子 目連에 대해 耶輸陀羅는 완강히 거부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애쓰는 어미 耶輸陀羅의 悲嘆, 울분이 이 설화를 감명 깊게 만들고 있다. 耶輸陀羅의 울분을 토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태자께서는 나와 결혼하여)삼년도 되지 않아 나를 버리고 궁궐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본국에 돌아오는 일도 없었고 나를 찾아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과부나 다름없는 지금, 제 아들마저 뺏어 가도 되는 겁니까? 태자께서 부처가 된 것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미와 자식을 이별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찌 자비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한없이 울음을 터트렸다. (『今昔』 제1권 제17화)

釋迦如來爲太子時。娶我爲妻。奉事太子如事天神。未滿三年捨五欲樂。騰越宮城。逃至王田。自約得道誓願當歸。得道還國。都不見親。忘勿恩舊。劇於路人。使我守孤抱窮。今奪我子爲其眷屬。何酷如之。太子成道自言慈悲。今別母子何慈之有。(『經律異相』 제7권, (大正藏五三, 34b))

본 설화는 『未曾有因緣經』에서 나온 이야기로 『今昔』의 내용은 이를 간략화 하여 재인용한 『經律異相』에 가장 가깝다¹⁰⁾. 『經律異相』과 비교해보면 ‘五欲樂’을 ‘나’로, ‘都不見親’이 ‘나를 찾아주는 일이 없었음’으로 바뀌어져 있고, ‘한없이 울음을 터트렸다’ 등의 추가 기술로 원전에 비해 耶輸陀羅의 怨言이 증폭되어 있다¹¹⁾.

이와 같이 과부나 다름없는 처지와 자기를 전혀 찾아주지 않는 석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어미의 심정이 이 이야기에 잘 그려져 있다.

여기서 빠진 ‘夫婦’에 관한 이야기는 장을 새로이 하여 살펴보자.

4. 『十地修行記』와의 비교고찰

이제부터 한국의 불전자료 『十地修行記』의 제十地와의 대비고찰을 통해

『今昔』 耶輸陀羅像을 선명히 드러내 보기로 하자.

『十地修行記』는 전체 10화를 보살의 수행계위인 十地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제九地까지는 善色鹿王(제一地), 善友太子(제六地), 善慧仙人(제八地) 등의 본생담이며, 제十地는 석가의 탄생에서 成道까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仏伝으로 구성되어 있다. 『十地修行記』는 고려충숙왕 15년(1328)에 편찬된 귀중한 불전작품으로, 비록 고려말기에 형성되었으나 당시 유통되고 있는 話本의 원형은 상당히 그 형성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 자료이며,¹²⁾ “영웅의 일생”을 지향하는 통속소설의 완벽한 전기적 유형을 전개시킨 본생설화계 불전문학이다.¹³⁾

먼저 『今昔』와 『十地修行記』의 仏伝, 즉 『今昔』 제1권~제3권, 『十地修行記』 <제十地>의 개요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今昔』 제1권~제3권과 『十地修行記』 <제十地>의 개요

구분	『今昔』 제1권~제3권	『十地修行記』 <제十地>
편자	미상	미상
성립시기	1120~1140년 성립추정	고려 충숙왕 15년(1328)
구성	· 제1권 제1화~제8화: 석가의 出世成道譚 · 제1권 제9화~제3권 27화: 석가의 轉法輪譚 · 제3권 제28화~제3권 35화: 석가의 入涅槃譚	· 下天托胎부터 석가 成道까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轉法輪과 入涅槃에 관해서는 간략히 언급에 그침
특징	석가의 轉法輪譚에 중점을 둔 불전	석가의 成道에 초점이 맞추어진 불전

『今昔』와 『十地修行記』 仏伝冒頭는 석가의 도솔천에서의 下天托胎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前世에 석가가 도솔천에 보살로 태어나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때가 되어 인간 세상에 下生하려고 한다. 이런 시작은 『今昔』와 『十地修行記』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十地修行記』 <제十地>가 단편이어서 방대한 『今昔』와는 비교가 안 된다. 구성 면에서 살펴보면, 『今昔』는 방대한 독자적인 轉法輪譚을 구성하고 있어 특색이 있

10) 注4의 本田씨의 前掲논문 참조.

11) 黒部通善씨, 「『法華百座聞書抄』における 羅睺羅出家説話」, 『日本仏伝文学の研究』(和泉書院, 1989).

12) 史在東州, 『仏教系 國文小説の研究』(中央文化社, 1994).

13) 朴炳東氏, 「『釋迦如來十地修行記』研究」, 忠南大 博士學位論文, 1997.

으며, 『十地修行記』는 석가의 성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일종의 成道記 계통의 불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그 범위는 下天托胎에서 석가 成道까지가 된다.

『今昔』 제1권 제3화, 「悉達太子, 在城受樂」은 태자의 결혼과 四門出遊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불전에 많이 등장하는 阿私陀선인의 占相·7세 때의 學藝의 익힘·15세의 때의 무예의 競試(『十地修行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술 없이 곧바로 태자 17세 때의 納妃(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간다. 즉, 유소년시대의 이야기에 대해서 『今昔』는 수록하지 않고 있다.

『今昔』에서는 이 納妃의 이야기에서 耶輸陀羅가 처음 등장한다. 『今昔』에는 석가의 나이 17세가 되자 부왕은 여러 대신들을 모아 놓고, 태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 배필을 구해줘야 하겠는데 누가 좋은지 묻는다. 한 대신이 아뢰기를, 「석가일족 중에 바라문이 한명 있는데, 이름이 摩訶那摩라고 하며 딸이 있는데 이름이 耶輸陀羅라고 합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충명합니다. 태자의 妃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고한다. 그래서 바라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吉日을 정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만 하여 비교적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한편 『十地修行記』에서는 결혼에 대해 비교적 긴 서술을 한다. 이웃나라 비람국왕이 사신을 보내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耶輸공주와 아홉 겹으로 된 쇠북이 있는데, 귀국의 태자가 용력으로 그 북을 쏘아 뚫으면 공주를 태자비로 보내겠다는 내용을 전한다. 태자는 耶輸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 나라로 간다. 활로 그 쇠북을 뚫어 耶輸공주를 얻게 되었고, 공주와 함께 보배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와 같이 『今昔』와 『十地修行記』의 納妃에 대한 전개는 서로 다르며 『今昔』에는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결혼한 다음을 살펴보자. 『今昔』와 『十地修行記』는 결혼한 뒤의 태자와 耶輸陀羅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太子、妃ト常ニ相共ナル事无シ。始メ物ノ心吉ク知給ザリケル時ヨリ、夜ハ靜ニ心ヲ鎮メテ、思ヲ不亂シテ聖ノ道ヲ觀シ給ケリ。(『今昔』 제1권 제3화, 태자는 妃와 단둘이 있는 적이 없었다. 태자는 세상이치를 잘 모르시던 처음부터 밤에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聖道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

太子(中略)告夫人曰。「我等昔日、同在燃燈佛會下。獻七枝花。結花爲誓。今日雖同處深宮。莫貪欲樂。若戀皇宮快樂。豈不違願乎」朝朝共談般若。同務無生。(『十地修行記』第十地)

이와 같이 『今昔』에서는 태자가 결혼은 하였으나, 耶輸陀羅와 함께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항상 聖者의 길만을 생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十地修行記』에서는 태자와 耶輸陀羅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세에서의 善慧仙童과 蓮花를 파는 여인과의 發願授記 때의 맹세를 떠올리고 사이 좋게 함께 수행하는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한다.

『今昔』 제1권 제4화, 「悉達太子, 出城入山語」는 석가의 出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석가는 出家만을 생각하고, 부왕 淨飯王은 대신들에게 명하여 사대문을 굳게 지키게 한다. 어느 날 밤, 耶輸陀羅는 세 가지 꿈을 꾸다. 하나는 달이 땅에 떨어지는 꿈, 두 번째는 이빨이 빠지는 꿈, 세 번째는 오른쪽 팔이 없어지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태자에게 이 세 가지 꿈이 무슨 징조인지 물어 보았다. 태자 왈,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고, 이빨은 빠지지 않았으며, 팔도 그대로 붙어 있다. 그 세 가지 꿈은 무의미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다.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태연스레 답하였다. 그러나 실은 이 악몽이 태자 出家의 징조였으며, 사실 태자는 얼마 있지 않아 出家를 하게 된다. 꿈은 해몽이 중요하다는 속설이 있듯, 이 대목을 耶輸陀羅에 대한 배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냉담함이 느껴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석가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어서 『釋迦譜』에 根源을 가진¹⁴⁾ 기사로 추정되는 부분이 덧붙여 있다. 즉, 태자에게는 三妃가 있었는데, 첫째는 瞿夷, 둘째는 耶輸, 셋째는 鹿野라 하였고, 궁궐 내에 세 개의 누각(三時殿)을 만들어 각각 2만명의 시녀를 두게 하였다는 기사가 덧붙여 있다.

한편 『十地修行記』에서는 태자가 耶輸陀羅에게 자신의 出家에 대한 마음을 밝힌다. 즉 耶輸陀羅는 「汝出家去。我在深宮緣(태자께서 출가하시면 나홀로 궁궐에서 어찌 지냈니까)이라고 묻자, 태자는 향을 한 봉지 주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그 향을 피우면 구제받을 것이라는 말을 전개해 『今昔』와는 달리 耶輸陀羅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여기까지 서술해온 바와 같이, 태자와 태자비인 耶輸陀羅와의 관계는 『十地修行記』에 있어서는 비교적 협조적, 호의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今昔』에 있어서는 그다지 협조적, 호의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今昔』에서는 태자의 제2부인으로서, 「羅睺羅ノ母耶輸陀羅」(제1권 제17화, 羅睺羅의 어머니인 耶輸陀羅)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三妃에 관해서

14) 注4의 本田씨의 前掲논문 참조, 5P

는 앞에서 언급한 ‘前生’의 耶輸陀羅宿業譚의 冒頭에도 보여 주목된다.

今昔, 仏悉達太子ト申シ時ニ、三人ノ妻御シテ、其ノ中ニ耶輸多羅ト申ス人有リ。其ノ人ノ爲ニ太子勲ニ当リ給フ事有レドモ、思知タル心無シ。太子無量ノ珍寶ヲ與へ給フト云ヘドモ、更ニ不喜ズ。(『今昔』 제3권 제13화, 지금이 되어서는 옛 이야기지만, 부처가 悉達太子라고 하셨을 때, 세 분의 아내가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耶輸多羅가 있었다. 태자는 그녀를 위해 성심을 기울이셨지만, 본인은 그다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태자가 아무리 진귀한 보물을 주어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爾時世尊成道已後。尊者優陀夷而白佛言。世尊。云何如來在王宮時。將身一切無價瓔珞。脫持施與耶輸陀羅。不能令彼心生歡喜。(『佛本行集經』 제12권)

이 이야기는 위에 인용한 『佛本行集經』, 혹은 그것을 轉載한 『法苑珠林』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底經에는 三妃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은 『今昔』의 독자적인 추가부분으로 추정된다. 제1권 제4화에서 기술한 三妃가 이곳에 다시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今昔』의 耶輸陀羅 인식은, 태자 三妃 중의 제2부인으로, 羅睺羅의 어머니로, 그리고 석가와와의 관계에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설화선택이나 구성 면에서 보아도, 耶輸陀羅 관련 이야기에 대해 설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요인들이 『過去現在因果經』 冒頭에 보이는 蓮花공양이야기 같은 것이 『今昔』 冒頭에는 자리 잡을 수 없었던 한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今昔』의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 약한 比重의 원인은, 당시의 불교사상과 『今昔』의 地盤과 사상 등 다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今昔』의 選者나 성립사정 등이 불분명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검토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今昔』의 佛教思想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통해 그 원인의 한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도솔천의 內院에서의 석가의 下生을 두고, 『十地修行記』에서는 그 이유를 과거세에서의 수많은 보살도를 행하여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 「大法輪」을 전하기위해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今昔』에는 「諸ノ行ハ皆無常ズ」(모든 삼라만상은 무상하다)라는 표현밖에 보이지 않는다. 『今昔』의 석가출세성도담은 도처에서 이 세상의 無常을 서술한다. 몇 예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世間ハ皆無常ズ。我が學ブ所ハ無漏ノ正道也。(제1권 제3화, 이 세상은 모두 무상합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번뇌를 벗어난 바른 가르침입니다.)

恩愛ハ會ト云ヘドモ離ル。世間ノ無常必ズ可畏シ。出家ノ因緣ハ必ズ遂難シト。(제1권 제4화, 은혜로 맺은 것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무상은 정말 두려워해야만 한다. 出家의 인연은 정말 이루기 힘든 것이다.) 一切恩愛。會當別離。世間之事。易可果遂。出家因緣。甚難成就(『過去現在因果經』 제2권)

形チ美也ト云ヘドモ、心ニ無常ヲ不念ズ。死テ必ズ三惡道ノ中ニ可墮シ。(제1권 제6화, (너희들은)몸은 아름다워도 마음은 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죽으면 반드시 三惡道에 떨어질 것이다.)

한편 『十地修行記』에는 도처에 인과사상이 강조되어 있다. 여기에 한 예를 들어둔다¹⁵⁾.

靜居諸天。下來報太子曰。無量勤苦修道。爲度衆生。今者莫戀皇宮。出家時至。(『十地修行記』 第十地)

(靜居・諸天)太子ニ曰テ言サク、「内外ノ眷屬、皆悉ク眠り臥タリ。只今此レ、出家ノ時也。(제1권 제4화)

이와 같이 『十地修行記』는 태자 出家 때에도 「無量勤苦修道」를 서술해 出家를 前世에 쌓은 공덕과 결부시킨다. 하지만 『今昔』의 석가출세성도담에는 그 유명한 연화공양이야기도 보이지 않으며, 出家 때는, 태자의 出家를 슬퍼해 비 오듯 눈물을 흘리는 車匿과 愛馬를 향해, 「恩愛ハ會ト云ヘドモ離ル。世間ノ無常必ズ可畏シ(은애로 맺은 것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무상은 정말 두려워해야만 한다)」라고 『十地修行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今昔』의 이 부분 출처는 『過去現在因果經』인데, 그 곳에는 「一切恩愛。會當別離。世間之事。易可果遂」라고 기술되어 있어 「無常」이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요컨대, 불전을 전개함에 있어 『十地修

15)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善慧仙童과 蓮花를 파는 여인과의 發願授記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行記』는 인과사상 논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今昔』은 무상사상 논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과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히 석가와 耶輸陀羅와의 이야기는 풍부해질 것이고, 無常을 강조하다보면 耶輸陀羅와의 결혼, 전생이야기 같은 것들의 중요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야기가 빈약해지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부로서의 석가와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今昔』과 『十地修行記』에서 보이는 耶輸陀羅像의 차이의 한 원인으로서는 양 작품이 강조하는 불교사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외부적인 검토를 통해 내부적인 검토에서 나온 양 작품의 차이 설명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외부적인 검토는 『今昔』과 거의 동시대에 성립된 『百座法談聞書抄』(1110년 頃)에 나타난 耶輸陀羅 관련 설화와 한일 불전문학의 冒頭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고의 주된 목적이 『今昔』에 그려져 있는 耶輸陀羅像의 규명에 있으므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百座法談聞書抄』는 한 內親王의 發願에 의해 이루어진 說敎의 기록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중 20일분이다. 이곳에 羅睺羅出家譚이 보이는데, 『今昔』과 마찬가지로 目蓮이 부처의 말을 전했을 때 강하게 반발하는 耶輸陀羅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¹⁶⁾.

부처님이 라후라를 데리고 가셔서 안 되지요. 부처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이 궁궐을 떠나 출가하실 적에 (아내인) 나에게 이렇다고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12년 수행 중에 왜 저를 한번도 찾아주시지 않으셨는지요!. 이 라후라 마저 밋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耶輸陀羅는 남편인 태자가 출가할 때 아내인 자기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다는 점, 또 12년 수행 중에 한번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격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黒部씨는, 『百座法談聞書抄』와 『今昔』의 羅睺羅出家說話의 비교분석을 통해, 『今昔』 耶輸陀羅의 말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怨言」이 있고, 『百座法談聞書抄』 耶輸陀羅의 말에는 『今昔』보다

도 더 심한 「남편에게 버림받은(아내의) 閨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내의 원망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본 설화의 原典인 『未曾有因緣經』이나 이를 재인용한 『釋迦譜』 『經律異相』을 보아도 중국에서는 耶輸陀羅의 怨言은 조금도 성장 발전해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今昔』과 거의 동시대에 성립된 『百座法談聞書抄』에도 耶輸陀羅像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 『今昔』에서 보이는 耶輸陀羅像은 역시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부터 한일 불전문학 冒頭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자. 여기서 주목되는 본생담은 善慧仙人(摩訶仙人, 儒童菩薩)의 蓮花꽃을 파는 耶輸陀羅와의 因緣譚과 雪山童子의 捨身聞偈譚이다. 두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善慧仙人」

석가가 前生에 善慧仙人이었을 때, 꽃 파는 여인, 耶輸陀羅로부터 언뜻 일곱송이를 사서 然燈佛에 공양하는 등의 공덕에 의해 그 부처로부터 미래에 부처가 된다는 授記(予言)을 받았다는 로맨스 이야기.

「雪山童子」

석가가 前生에 雪山童子였을 때, 帝釈天이 童子를 시험하기 위해 變化한 羅刹(귀신)로부터 「諸行無常, 諸生滅法」라는 無常偈를 듣고 남은 남은 半偈「生滅滅已, 寂滅為樂」를 듣기 위해 捨身하려는 고귀한 이야기.

이 「雪山童子」설화의 原典은 『涅槃經』에 보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구체적 이름 없는 婆羅門 신분으로 등장하나, 『三寶繪』를 포함하여 일본 자료에서는 거의 대부분 雪山童子로 호칭된다. 雪山童子의 호칭은 中國天台의 제六祖, 湛然의 『法華玄義釋籤』(제1권)에 보이지만, 雪山童子의 호칭이 일반화된 것은 일본에 수용된 이래 일어난 현상인 것 같다¹⁸⁾. 또한 이 설화는 일본에 流入된 이래, 「諸行無常」으로 시작되는 無常偈와 함께 널리 유포되어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생담이다.

이와 같이 「善慧仙人」은 과거의 <인연>내지는 <인과>을 중시하는 설화이고 「雪山童子」는 <無常>偈를 향한 <求法聞法>을 중시하는 설화라 할 수 있다.

16) 이 羅睺羅出家譚은 三井寺의 香雲阿闍梨가 說한 것임.

17) 注11의 黒部씨 前掲논문 참조.

18) 拙稿, 「『釈迦出世本懷伝記』의 雪山童子譚考」(『일본학보』 제51집, 2002).

불전경전의 구성을 살펴보면, 불전 冒頭에 仏統譜나 王統譜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今昔』 불전 초반의 釋迦出世成道譚 구축에 있어 原典이 된 『過去現在因果經』이나 『仏本行集經』에는 仏統譜로서 「善慧仙人」의 蓮花 공양이야기로 불전 冒頭를 장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釋迦如來十地修行記』 제10地の 「실달태자」 설화를 구축함에 앞서 제8地에 「善慧仙人」 설화가 수록되어 있고²⁰⁾, 『月印釋譜』(1459년)의 제1권 冒頭에는 석가족의 瞿曇氏의 연혁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仏統譜로서 善慧仙人의 蓮花 공양이야기를 長文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팔상명행록』(1911~1912년 필사)²¹⁾, 『八相錄』(1922년) 등 이후에 전개되는 한국의 불전들 대부분 과거세 蓮花 공양이야기로 불전 冒頭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三寶繪』상권에 구축된 13話의 본생담²²⁾에는 「雪山童子」(제10화)는 보이나, 「善慧仙人」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불전 冒頭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불전경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善慧仙人」이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東大寺諷誦文稿』(824~834년)²³⁾나 『今昔』 등의 불전 冒頭와 같이, 托胎이야기로 바로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私聚百因緣集』(1257년) 제1권의 「天竺佛法王法ノ緣起由來」나 『三國傳記』(1407년 경)의 제1권 제1화, 「釋迦如來出世之事」 등처럼, 仏統譜나 王統譜를 기술하고 있어도 불전 冒頭에 「善慧仙人」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釋迦出世本懷傳記』(1581년 筆寫)·『釋迦の本地』(1643년 筆寫)등 중세불전에 이르러서는 雪山童子의 捨身聞偈譚으로 불전의 冒頭를 장식하게 된다. 雪山童子譚으로 불전의 모두를 장식하여 석존의 전생이야기를 꾸미는 불전은 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독자적인 일본불전문학형성에 이 설화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일본불전에서는 본생담으로 불전 冒頭를 구성 시, 「善慧仙人」으로 불전 冒頭를 구성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일정기간이 흘러서는 「雪山童子」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서술해온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불전 冒頭 구성상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過去現在因果經』·『仏本行集經』 등에서 불전구성의 중요한 한 요소였던 「善慧仙人」의 연꽃 공양이야기가 한국에서는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기피되거나 「雪山童子」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전 冒頭 구성상에 나타난 특징을 불교사상의 한 측면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물론 일률적으로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에서, 한국불전에서는 〈因緣〉 혹은 〈因果〉를, 〈求法〉 혹은 〈無常〉보다는 좀더 중시하는 불전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고, 일본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국에서 나타난 불전구성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더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양국의 불교사상의 차이와 석가 및 耶輸陀羅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의 불전자료 『十地修行記』와의 대비고찰을 통해 『今昔』의 耶輸陀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고찰해 본 결과, 耶輸陀羅 관련 설화는 「前生」, 「夫婦」, 「아들 羅睺羅」, 「出家」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방대한 설화집인 『今昔』에는 耶輸陀羅관련설화가 6화에 불과하여 비중이 약하고 설화선택이나 구성, 서술에 있어서도 耶輸陀羅 관련 설화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의지를 그다지 볼 수 없었다.

또한 인식에 있어서도 三妃 중의 제2부인으로, 羅睺羅의 어머니로, 그리고 석가와와 관계에 있어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가와 耶輸陀羅의 관계에서, 『十地修行記』가 비교적 협조적,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반해, 『今昔』에서는 그다지 협조적이거나 호의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았다.

19) 注11의 黒部씨 논고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0) 『釋迦如來十地修行記』의 「十地」 구성설화는 다음과 같음. 善色鹿王(1지)·忍辱太子(2지)·布施國王(3지)·捨身太子(4지)·忍辱仙人(5지)·善友太子(6지)·金牛太子(7지)·善慧童子(8지)·布施太子(9지)·悉達太子(10지). 『釋迦如來十地修行記』에 수록된 본생담에 관해서는 拙稿, 「본생설화집을 통한 한일문화의 비교연구」(『일어일문연구』 제47집, 2003)를 참조.

21) 史在東, 「『팔상명행록』의 研究」(『人文科學論文集』 제16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22) 前半의 「六度」說話群에는 尸毘王·須陀摩王·忍辱仙人·大施太子·正閻梨仙人·拘賓大臣의 설화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이어서 後半의 「萬行」說話群에는 流水長者·堅誓獅子·鹿王·雪山童子·薩埵王子·須太那太子·施無孝子の 전체 13話의 본생담이 구축되어 있음.

23) 『東大寺諷誦文稿』 성립연대는 小林眞由美씨, 「『東大寺諷誦文稿』の成立年代について」(『國語國文』, 1992.9)에 의해 상당히 좁혀졌다.

要旨

本研究は、韓国の仏伝資料『十地修行記』との対比考察を通して『今昔』における悉達太子の妃、耶輸陀羅に対する認識を調べたものである。本稿は『今昔』の仏伝研究の一環であり、主たる研究目的は『今昔』の耶輸陀羅像の解明にある。

検討してみた結果、『今昔』には耶輸陀羅の関聯説話が六話に過ぎず、内容的に乏しく、説話選択や構成、及び叙述においても積極的に扱おうとする意志があまりみられなかった。また、認識においても太子の三妃の中の第二夫人、羅睺羅の母といった程度であり重んじられていないようである。釈迦との関係において、『十地修行記』が比較的協調的で好意的に描かれているのに対し、『今昔』には協調的、好意的に描かれていない。その原因の一つとしては、おのおの因果思想と無常思想をより強調する 兩作品の仏教思想の差が指摘できよう。

キーワード：今昔物語集, 釈迦如来十地修行記, 耶輸陀羅, 仏伝

투 고 : 2007. 2. 28
1차 심사 : 2007. 3. 10
2차 심사 : 2007. 3. 31

住 所 : (217-760) 강원도 속초시 교동 명지미래힐 105-1002
電 話 : 033-639-0313, 010-6655-9047
e-mail : tqkim@kl.ac.kr

【参考文献】

金泰光(2002), 「『釈迦出世本懐伝記』의 雪山童子譚考」(『일본학보』 제51집).
 _____(2003), 「본생설화집을 통한 한일문화의 비교연구」(『일어일문연구』 제47집).
 朴炳東(1997). 《釈迦如来十地修行記》研究. 忠南大 博士学位論文.
 史在東(1981), 「『팔상명행록』의 연구」(『人文科学論文集』 제16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_____(1994), 仏教系 国文小説의 研究, 中央文化社.
 李康沃(1988), 「仏教系 説話의 小説化 過程에 대한 考察」, 『古典文学研究』第4輯, 韩国古典文学研究会.
 朴炳采論註(1991), 『月印千江之曲』, 世英社.
 池上洵一(1984), 『今昔物語集の世界』, 筑摩書房.
 _____(1979), 「解説」, 東洋文庫本『今昔物語集 7 天竺部』.
 国東文磨訳註(1979), 『今昔物語集(一)』, 講談社.
 黒部道善(1989), 『日本仏伝文学の研究』, 和泉書院.
 小林眞由美(1992), 「『東大寺諷誦文稿』の成立年代について」(『國語國文』9월호).
 今野達(1999), 「解説」, 新日本古典文学大系本 『今昔物語集 一』.
 中村元(1992), 『ゴータマ・ブッダ 1』, 春秋社.
 本田義憲(1986), 『今昔物語集仏伝の研究』, 『叙説』 제10호.